

북

온 국민이 읽어야 할 '독도 교과서'

독도 견문록

주강현 지음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겠는가? 그러나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위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라며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 덕분에 주소, 평균 강수량, 위도 등 독도에 관한 몇 가지 정보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근거에 맞서기에는 빈약하기만 하다.

해양문명사인 주강현 박사의 '독도견문록'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불끓고 있는 한국인의 분노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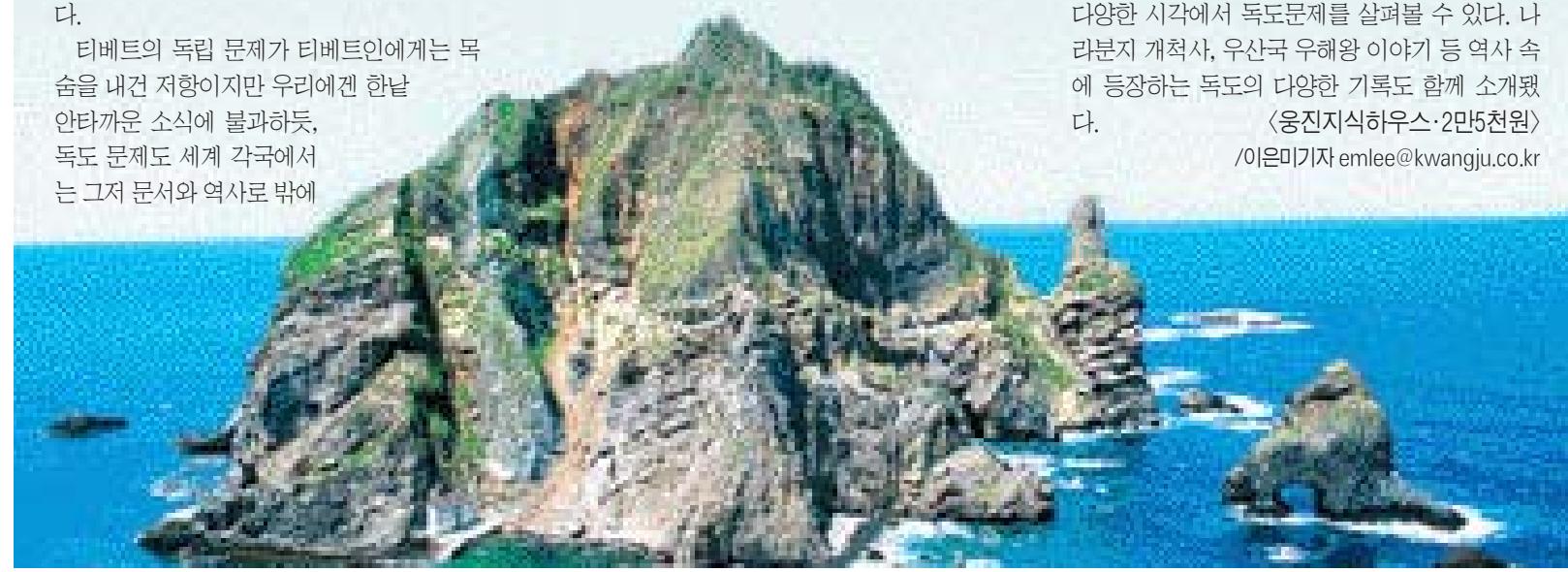
티베트의 독립 문제가 티베트인에게는 목숨을 내건 저항이지만 우리에게 한낱 안타까운 소식에 불과하듯, 독도 문제도 세계 각국에서는 그저 문서와 역사로 밖에

는 증명될 수 없는 남의 나라 일일 뿐이다. 때문에 저자는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다분한 만큼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치밀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책은 일본이 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등을 비롯해 일본의 주장에 있어 비합리적인 부분부터 목소도록 살폈다. 그들의 이론과 증거를 먼저 알아야 반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가 세계에 알려진 것은 18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포경선 '리昂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뒤 뒤에 따랐던 '리昂쿠르 암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독도 문제는 미지의 땅에 발견자 이름을 붙이고 힘으로 정복했던 대항해 시대의 아픈 역사가 잘못 채운 첫 단추였던 셈이다. 한라산이 오클랜드 산으로, 거문도가 해밀턴 항으로 탈바꿈한 이유도 역시 다르지 않다.

러일전쟁 때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관입시킨 일본의 행위도 이러한 제국들의 약탈 수법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했던 결과다.



야쿠자, 음지의 권력자들

미야자키 지음·강우원용 옮김



일본에서 화투 세 장의 숫자를 합친 끊발이 0이면 최악의 수로 불린다. 그 전형인 '3·8·9'를 '8·9·3' 순으로 읽은 '야쿠자'는 노름꾼 사이에 쓸모없는 폐의 대명사였다. 노름꾼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자신들과 같아서 스스로 야쿠자 신세로 불렸다. 이는 차츰 일정한 직업 없이 폭력을 휘두르며 남을 등쳐먹는 건 달이나 조직폭력배를 지칭하게 됐다.

야쿠자는 일본 사회의 그늘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교토의 야쿠자 조직 우두머리의 아들인 미야자키 마나부는 '야쿠자, 음지의 권력자'를 통해 '조직화된 폭력을 자본으로 삼아 활동하는 이익추구집단' (야쿠자에 대한 일본변호사협회의 정의)을 '의리와 인정의 조직집단', '하층민의 수호자', '도덕적 선악

을 뛰어넘는 필요악'으로 바라봤다.

이른바 야쿠자 긍정론이다. 막부 통치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외계층과 도시빈민층이 불가피하게 조직폭력단을 구성해 스스로 보호하고, 집단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설명이지만, 덕분에 야쿠자를 통해 일본의 과거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야쿠자는 과거에 드러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일본 사회의 여러 현상에 투영된 본질에 기압기 때문이다.

무사도 정신, 일본도, '오야붕'과 '고봉'의 봉건적 위계질서, 의리와 인정, 법보다 우선하는 내부 규율 등 야쿠자의 특징은 현대 일본의 모습을 보여온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어쩌면 야쿠자는 일본의 숨겨진 내면을 압축해 놓은 결사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오야붕'과 '고봉'의 관계를 보자. 유력한 자가 무력한 자를 따르고, 전인적 봉사 혹은 전 가족적 봉사

우선 저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논리에 맞서기 위해 역사적 근원을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밝힌다. 독도는 먼저 울릉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다. 주 박사는 가시거리에서 조업하는 울릉도 민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일본 오카 어민보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독도가 육안으로 관측 가능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는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한다.

1900년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영토에 포함시켰던 '칙령 41호'도 중요한 자료로 꼽았다. 울릉도 곳곳에서 발견된 고분군과 고대 유물, 국내 선사시대의 전형적인 무문토기, 신라 토기편 등은 울릉도가 한반도 본토와 지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정적 자료다. 이런 역사적 연관성을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책은 320여 쪽에 달하는 현장 사진과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등 각종 희귀 자료도 함께 실려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독도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나리분지 개척사, 우산국 우해왕 이야기 등 역사 속에 등장하는 독도의 다양한 기록도 함께 소개됐다.

〈웅진식하우스·2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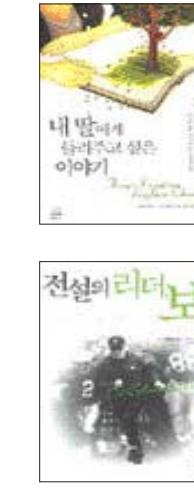
▲한일고대사 유적답사기=고려대 동아시아 문화교류연구소 연구원이 흥성화가 고대 한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영산강부터 교토까지 한국과 일본의 유적을 살핀 문화유산답사기. 역사서를 비롯해 역사학자, 주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고대 한일 관계 진실을 추적했다.

〈심인·2만2천원〉



▲나는 스타벅스에서 불운한 상상을 한다-미국문화 읽기=미디어 학자인 김인규가 '화장실 출서기', '총기 난사 사건' 등 미국의 일상부터 사회적 이슈를 25가지 주제로 나눠 미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살폈다.

〈인물과사상·1만4천원〉



▲내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영미권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엘리자베스 노블의 삽작. 죽음을 앞둔 엄마가 네 딸에게 쓰는 편지와 함께 각기 다른 성격의 네 딸이 엄마의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을 소설로 그렸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전설의 리더, 보=21년간 승률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한 미국의 전설적인 풋볼 감독 보스케벨리의 리더십 이야기.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며 팀을 이끌어 갔는지, 직원들과의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실천법을 염볼 수 있다.

〈서돌·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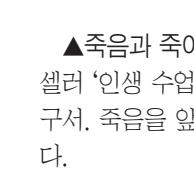
▲소멸=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가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마지막 작품이자 작가의 자작적인 소설. 작가의 분신이자 주인공인 무리우가 부모의 부고 전보를 받고 고향인 볼프스에 가서 장례를 치는 과정을 그렸다.

〈현암사·1만4천원〉



▲돌아다 보면 문득=2001년 발표한 '詩를 찾아서' 이후 7년 만에 나온 정희성 시인의 시집. 산사의 약수터 처럼 잔잔한 시어를 풀어 놓았지만 과거 참여 시인으로 날카로운 시의 날을 세웠던 시인의 성찰이 고스란히 담겼다.

〈창비·7천원〉



▲세상을 위한 학문을 하라=여성학자 이하화 씨가 적극적인 현실 참여로 낡은 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통해 삶을 이롭게 했던 조선시대 실학파의 정수를 담았다. 다산 정약용의 '독민심서' '경세유표'와 박지원의 사상 등이 소개됐다.

〈김영사·1만2천원〉



▲죽음과 죽어감=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볼라 로스의 죽음을 대한 연구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겪는 심경의 변화를 가감 없이 담아냈던 시인의 성찰이 고스란히 담겼다.

〈창비·7천원〉



▲그것은 뇌다-문제는 마음이 아니다=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했다.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에 기초해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

〈브레인 월드·1만5천원〉



로 현신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생활보장을 얻어 이해 공동집단을 결성한 애다. 이 관계는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정당의 과별이나 분파, 대기업의 사내 과별, 노동조합 등 사내단체 1인 지배구조에서 어렵지 않게 염볼 수 있다.

이렇듯 일본사회 전 영역에서 야쿠자는 여전히 혼재진행형이다. 예술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유명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외조부(아버지)가 결혼하면서 외조부의 성을 따랐다가 바로 유명한 야쿠자 조직인 고이즈미구미를 변성시키고 군국주의 시절 체신상까지 역임한 고이즈미 마타지로이다.

고이즈미가 보여준 우의성향의 정치관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 건설에 기여했던 야쿠자 집안의 내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다미디어·1만2천원〉

/김주정 jnews@kwangju.co.kr

로 현신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생활보장을 얻어 이해 공동집단을 결성한 애다. 이 관계는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정당의 과별이나 분파, 대기업의 사내 과별, 노동조합 등 사내단체 1인 지배구조에서 어렵지 않게 염볼 수 있다.

이렇듯 일본사회 전 영역에서 야쿠자는 여전히 혼재진행형이다. 예술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유명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외조부(아버지)가 결혼하면서 외조부의 성을 따랐다가 바로 유명한 야쿠자 조직인 고이즈미구미를 변성시키고 군국주의 시절 체신상까지 역임한 고이즈미 마타지로이다.

고이즈미가 보여준 우의성향의 정치관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 건설에 기여했던 야쿠자 집안의 내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다미디어·1만2천원〉

/김주정 jnews@kwangju.co.kr

로 현신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생활보장을 얻어 이해 공동집단을 결성한 애다. 이 관계는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정당의 과별이나 분파, 대기업의 사내 과별, 노동조합 등 사내단체 1인 지배구조에서 어렵지 않게 염볼 수 있다.

이렇듯 일본사회 전 영역에서 야쿠자는 여전히 혼재진행형이다. 예술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유명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외조부(아버지)가 결혼하면서 외조부의 성을 따랐다가 바로 유명한 야쿠자 조직인 고이즈미구미를 변성시키고 군국주의 시절 체신상까지 역임한 고이즈미 마타지로이다.

고이즈미가 보여준 우의성향의 정치관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 건설에 기여했던 야쿠자 집안의 내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다미디어·1만2천원〉

/김주정 jnews@kwangju.co.kr

로 현신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생활보장을 얻어 이해 공동집단을 결성한 애다. 이 관계는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정당의 과별이나 분파, 대기업의 사내 과별, 노동조합 등 사내단체 1인 지배구조에서 어렵지 않게 염볼 수 있다.

이렇듯 일본사회 전 영역에서 야쿠자는 여전히 혼재진행형이다. 예술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유명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외조부(아버지)가 결혼하면서 외조부의 성을 따랐다가 바로 유명한 야쿠자 조직인 고이즈미구미를 변성시키고 군국주의 시절 체신상까지 역임한 고이즈미 마타지로이다.

고이즈미가 보여준 우의성향의 정치관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 건설에 기여했던 야쿠자 집안의 내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다미디어·1만2천원〉

/김주정 jnews@kwangju.co.kr

로 현신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생활보장을 얻어 이해 공동집단을 결성한 애다. 이 관계는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정당의 과별이나 분파, 대기업의 사내 과별, 노동조합 등 사내단체 1인 지배구조에서 어렵지 않게 염볼 수 있다.

이렇듯 일본사회 전 영역에서 야쿠자는 여전히 혼재진행형이다. 예술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유명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외조부(아버지)가 결혼하면서 외조부의 성을 따랐다가 바로 유명한 야쿠자 조직인 고이즈미구미를 변성시키고 군국주의 시절 체신상까지 역임한 고이즈미 마타지로이다.

고이즈미가 보여준 우의성향의 정치관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 건설에 기여했던 야쿠자 집안의 내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다미디어·1만2천원〉

/김주정 jnews@kwangju.co.kr

로 현신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생활보장을 얻어 이해 공동집단을 결성한 애다. 이 관계는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정당의 과별이나 분파, 대기업의 사내 과별, 노동조합 등 사내단체 1인 지배구조에서 어렵지 않게 염볼 수 있다.

이렇듯 일본사회 전 영역에서 야쿠자는 여전히 혼재진행형이다. 예술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유명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외조부(아버지)가 결혼하면서 외조부의 성을 따랐다가 바로 유명한 야쿠자 조직인 고이즈미구미를 변성시키고 군국주의 시절 체신상까지 역임한 고이즈미 마타지로이다.

고이즈미가 보여준 우의성향의 정치관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 건설에 기여했던 야쿠자 집안의 내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다미디어·1만2천원〉

/김주정 jnews@kwangju.co.kr

로 현신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생활보장을 얻어 이해 공동집단을 결성한 애다. 이 관계는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정당의 과별이나 분파, 대기업의 사내 과별, 노동조합 등 사내단체 1인 지배구조에서 어렵지 않게 염볼 수 있다.

이렇듯 일본사회 전 영역에서